

월성원전 삼중수소 현안소통협의회 제1차 회의

- 일시 : 2021. 3. 30. (화) 오후 3시 20분
- 장소 : 경주 더케이호텔 화랑A홀

회 순

- I. **개회 및 위원 소개 1**

- II. **활동계획 논의 12**

- III. **폐회선언 72**

(오후 3시 24분 개회)

I. 개회 및 위원 소개

○의 장 (김호철) 안녕하세요? 저희 회의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잘 쉬지도 못하시고 공식행사하시고, 또 연이어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어서 피곤하실 듯합니다.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잘 회의가 진행되어서 피곤함이 덜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인사 말씀에서 다 말씀을 잘 드렸고요.

우선, 정말 바쁘신 일상을 제쳐두시고 이런 어려운 자리를 수락하시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또 원자력계가 심혈을 기울여서 훌륭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신 것 같아서, 진영이 잘 짜여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활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또 원자력 운영에서 어떤 안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신뢰를 얻음에 있어서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하기에는 저희 지금의 진영과 이 멤버가 참 정말 잘 짜여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잘 해보아서 국민들이 원자력 운영에 관한 안전을 신뢰하면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첫 대면이기 때문예요, 한번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자기 소개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소통협의회 앞으로 활동에 대한 바람도 말씀

하시고 그렇게 한번 편안한 대화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충분할 듯 하니까요, 우선 돌아가시면서 자기소개, 또 활동에 대한 바람, 또 기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장님!

우리가 첫 회의인데, 앞으로 회의는 자리 배치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모일 때는 가급적이면 원탁 형태로 해서 편안한 대화의 분위기가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 장 (김호철)** 우선 지역에 계시는 분들부터, 멀리서 오신 손님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부터 소개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중표 위원님부터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홍중표 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월성 원자력 최인접의 '나아리' 이장을 맡고 있는 홍중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이 정말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안 생기면 좋겠죠. 그런데 이왕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도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런 배운 부분과 궁금한 점은 여러 가지 질의해서 답을 얻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의 장 (김호철) 편히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홍 위원 반갑습니다. 함께 활동하게 된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 맡고 있는 이상홍입니다.

좀 전에 홍중표 위원님께서 인사를 하셨지만, 저와 홍중표 위원은 지역 대표로 해서 지금 추천이 되어 있고, 지금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시민이 한 26만 명 되는데, 저희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이 된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들에서 어쨌든 신뢰를 해서 추천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지역민이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솔직히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들을 믿고 열심히 해볼 생각이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환경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자력 관련된 솔직히 전문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는 위원들 중에는 관련 전문가들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도 모두말씀에서 신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옆에 있는 홍중표 위원이나 저를 잘 이해시키고 저희들이 이해될 수 있으면 경주시민들도 충분히 현 사안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문가 일곱 분을 오늘 처음 얼굴을 뵈고 했는데, 다들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 조사활동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진짜 그분들이 공정하게 잘 조사할 수 있도록 또 길을 터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사단하고 잘 소통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 장 (김호철) 이제는 편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실까요?

우리 박상덕 위원님.

○박상덕 위원 반갑습니다, 박상덕입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원자력만 했습니다. 이제 40년도 넘었죠.

그리고 월성 1호기 초기 시운전할 때 저는 고리에 있었는데, 월성에 파견 나와서, 3개월 동안 파견 나와서 초기 시운전을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애착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 협의회가 할 일 중의 하나는 아까도 제가 저쪽(삼중수소 조사단·현안소통협의회 합동 착수회의) 방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소통'입니다.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에 성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공기업, 정부 쪽에서 일하다가 지난 4년 동안은 서울대학교에 와 있는데, 마침 문재인정부가 탈(脫)원전을 얘기하는 바람에 시민운동가로 변신을 해서 서울대학교정책센터에서도 일하면서 지금은 원자력지지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운동을 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 결국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이 중요하다.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유통되어 있다. 소위 탈원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은 잘못된 자료가 그대로 유통되고

있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삼중수소도 아까 말씀드렸죠. 한수원 문제없다, KINS 문제없다, 원안위 문제없다. 그런데도 아직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뢰를 쌓지 못한 제 책임도 있고, 원안위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소통협의회, 또는 조사단 이런 일을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자. 그런 분기탱천(憤氣撐天)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얼굴도, 다 안 보여드렸지만 부드러운 사람인데, 지난 4년 동안 투쟁하면서 제 성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가족에게 미안하고, 왜냐면 늘 나가서 싸우니까 집사람도 제가 변한 것을 알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나 이게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골에 가서, 지금 시골에 살고 있어요. 그냥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 될 나이이고 그만큼 제가 먹고 살 것은 다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곳에 나온 것은 우리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된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장(의장)님 모시고 잘 소통해서 그 결과물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전사업자가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아야죠. OK, 신문에 내고 처벌하고.

그러나 발전사업자가 법을 안 어겼는데, 안 어겼는데 어떤 민원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막아야 돼요? 정부가 막아야죠. 원안위가 막아야 되

는 것입니다.

저는 원안위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밑에 KINS가 있잖아요. KINS의 기술능력을 가지고 평가해서 “아, 이것은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 장 (김호철) 고맙습니다.

소통은 서로 다름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아마 소통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직한 말씀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병섭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병섭 위원 저는 한병섭입니다.

저는 원자력을 전공했고, 사실 탈핵도 아니고요, 탈핵 지지자도 아니고, 그런데 안전 측면으로 포커스 되다 보니까 그렇게 비치기는 한데, 제 스스로 탈핵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찌 됐든 최근에 밖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빛 격납건물 같은 것이나 그다음에 대진침대 같은 것을 겪으면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풀어가는가?

그러다가 결국은 파국이 왔죠. 삼중수소도 저래 되어 있고, 한빛은 지금 4년째 서 있고. 세우고자 한 적은 없었거든요. ‘빨리 해결하자.’라는 주의, 생각이었는데,

사실 우리 원자력 기존에 있던 어떤 사고판단 체계가 이것을 드러내놓고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는 덮고 넘어가는 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자꾸 만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일에 대해서도 아까 KINS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이야기는 좀 있었습시다만,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문구 하나 고치고, 시행령하고 규제지침에 한 세 줄 넣고, 그다음에 보고절차에 <표> 하나 바꾸면 되는 일인데, 제가 하는 데도 몇 시간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인데, 이것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사실은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배울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의 장 (김호철)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안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월성 삼중수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도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 여기 앞에 또 경주에

사시는 지역 주민분들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성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투명하게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되고, 또 왜 매번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게 어떤 내부의 제보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보고가 안 되고, 또 이런 문제가 바깥에 알려지지 않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가라는 문제들이 제대로 짚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 원전들도 이제는 되게 노후화가 돼서 여러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규제기관이나 사업자나 충분하게 대비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비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또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이기도 하고, 또 시민사회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탈핵이나, 찬핵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도 원전 안전성을 어떻게 개선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기술원, 그리고 사업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 현안소통협의회에서 지혜를 잘 모아서 의견을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 장 (김호철) 이희석 위원님.

○이희석 위원 안녕하세요? 포항공대 가속기연구소에 근무하는 이희석입니다.

저는 멀리 돌아와서 다시 여기에 왔는데요, 여기 앞에 계시는 두 분들

처럼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포항은 여기에서 얼마 거리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일을 시작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방사선 안전 관련된 일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방사선 측면에서는 거대한 시설이 하나가 원자로이고, 하나가 대형가속기 시설입니다. 대형가속기 시설에도 방사선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삼중수소하고도 관련이 있을까 싶은 부분, 사실은 저희는 전자가속기여서 삼중수소 생성률이 작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삼중수소가 만들어지는지도 실험도 해봤고, 재보기도 해봤고 해서 삼중수소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틀 내에서, 그러니까 원안위와 KINS라는 그런 체계 내에서 다 설명이 되고 신뢰를 회복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런 별도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에 추천돼서 나온 것은, 제가 '원자력학회 방사선방호연구부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계 대표로 해서 여기에 오게 된 것이고, 필요한 대로 원자력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과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안전을 실제, 지금 현재 방사선안전실장이고 방사안전관리자로서, 포항공대 관리자로서 제가 벌써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저만큼 까다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엇그저께 다른 얘기에서 “안전을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면 안 된다.” 착하면 안 되거든요, 안전 하는 사람은 까다롭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충분히 ‘까다롭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안전이 정말 안전한가, 아닌가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연구소원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교육할 적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선량한도가 일반인 1 mSv이고,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20 mSv로 연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피폭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 교육 받는 사람들 중에서 20.1 mSv가 나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상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20.1이나 20.2나. 21이 된들 아무런, 안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문제가 돼요. 소장님, 그다음에 총장님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넘지 않도록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생명이나 안전에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

그래서 저희가 이 삼중수소에 대해서 몇 가지 숫자를 가지고 계속 지금 논의를 해나갈 텐데, 사실 그 숫자에서 안전이라는 게 정말 안전하고 정말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별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을 잘 관리하는가? 이것은 관리를 맡은 사람들의 책임이고, 정부에서 주어진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지만 그 숫자가 몇 개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II. 활동계획 논의

○의 장 (김호철) 저희가 이번 꼭지는 4시 25분 정도까지 하고, 좀 쉬었다 다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 그래도 큰,

○박상덕 위원 제가 진행 발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녹음되고 있나요?

○의 장 (김호철) 네, 공식적인 회의는 저희가 녹취를 하고, 저희 소통협의회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정리해서 나중에 국민들께 이런 활동을 했다고 보고도,

○박상덕 위원 회의록은 남길 텐데, 전체를 녹음하고 있는 것이죠?

○의 장 (김호철) 녹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상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사무관) 저 뒤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 장 (김호철) 네.

○박상덕 위원 하고 있어요?

○의 장 (김호철) 네, 기본적으로 공식회의는 녹취를 하고요. 저희가 좀 더 격의 없는 자유토론이라든가 할 때는 저의 결정으로, 또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녹취 없는 또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할 때는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박상덕 위원 아니, '꼭 녹음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의 장 (김호철) 아, 네.

○박상덕 위원 왜냐면 이 얘기했다가 좀 변하면 저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한 것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꼭 녹취를 해서 그 사람이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의 장 (김호철) 제가 기본적으로 '녹취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이 활동결과를 남기자.'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상덕 위원 좋습니다.

○의 장 (김호철) 그래서 큰 열개는 한번 잡아 놓고 회의를 해야, 저희가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한번 좀,

어떤 열개들을 잡을 수 있을까, 대략 저의 생각도 말씀드려서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안전정책과에서 오늘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열개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쪽지 정도를 이렇게 제시해 주셨네요.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4시 25분까지 첫 번째 논의할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우리 회의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 좋겠냐. 그다음에 아까 조사단장님 말씀하셨지만, 3주에서 4주 정도 조사계획을 자율적으로 세우시겠다.

그러면 그 조사계획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또 소통협의회 측에서 각계 의견들을 반영한 추가조사 사항이라든가 보완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을

내고, 그래서 충분한 각계 의견들이 반영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일 것 같아서 조사계획을 검토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4시 25분까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사계획 검토' 관련해서 한번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사단의 조사계획은 한 3주 내지는 4주 정도에 걸쳐서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 조사계획이 제출된 이후에 저희들은 조사계획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사가 한없이, 조사계획 자체가 늘어져서는 안 되니까 대략 2주 이내에는 저희가 검토의견을 모아서 조사단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기본(안)인데요. 이게 바람직하겠는지, 아니면 좀 더 바람직한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단에서 조사계획을 잘 세운다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스케줄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홍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우리 출범식 할 때 KINS에서 전반적인 월성원전 상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시간이 되게 짧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중수소 관련된 여러 현황들을 이해하기에도 좀 부족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별도로 저희들이 이 협의체에서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지면 상황에 대한 이해도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조사단에서 조사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안목도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의 장 (김호철) 조사계획 나오기 전이라도 한번 현황에 대해서 조금 추가 보고를 받으면서 또 어떤 조사가 필요할지에 대한 구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번은 더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이상홍 위원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의 장 (김호철) 박 위원님.

○박상덕 위원 아까 저희들이 보고받은 자료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 추진계획' 3페이지에 의하면 현안소통협의회 역할 중의 하나가 '각계 의견을 조사단 활동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조사단이 조사계획을 만들 때 우리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인지, 또는 조사계획을 만들어서 갖고 오면 거기에 반영하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 장 (김호철)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는, 조사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검토하면서 조사계획이 나오기까지 저희 위원님들은 각계를 또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각계 의견들을 조금씩 수렴하면서 그런 것들을 모으고 수렴하신 상태에서 그 조사계획에 대해서 각계는 이런 바람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사계획의 추가, 보완 혹은 정정 그런 의견들을 주

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위원님 자신의 전문성에 기반한 의견을 또 주실 수도 있겠죠.

○박상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석 위원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 장 (김호철) 네.

○이희석 위원 혹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한다면 전달하는 것이 단순히 문서상으로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모여서 설명하고 의견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 장 (김호철) 그런 의견까지 주시면 제가 조사단장님하고 의논을 드려서 또 조사단 분들의 일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든 조율해서 저희 의견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중표 위원 저희들이 조사단에 요구를 하면 조사단이 일단 가서 조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의 장 (김호철) 네.

○홍중표 위원 그럴 적에 조사단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할 당시에 보면 어느 지점이나 차수막이 금이 갔다든가 이런 부분할 적에 저희들 입회하에, 특히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이상홍 국장님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이 입회하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들이 있어서, 다른 분들을 떠나서 저희들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꼭 조사를 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 장 (김호철)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것은 저희 이 의논이 우선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는 세 번째 꼭지 때 조사단과의 협의 방법이나 현장조사 참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다음, 4시 35분 이후 논의시간에 좀 더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우리 이희석 위원님께서서는 기본(안)을 바탕으로 해도 무방하겠다는 말씀에 이상홍 위원님께서서는 그전이라도 좀 더 한번 추가적인 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그사이에 또 우리 조사범위와 관련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들도 한 번 더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이셨어요.

더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지?

○안재훈 위원 저는 일단 저희가 전문성이 아무래도 현안소통협의회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문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혹은 그분들의 의견도 검토를 같이 해볼 수 있도록 조사계획에 대해서 Cross-check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 장 (김호철) 저는 공감이에요.

그리고 박상덕, 한병섭, 이희석 세 분 위원님의 전문성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세 분이 다루지 아니하는 분야의 세부조사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배관, 콘크리트, 구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저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는 그 분야 전문가분들께서 전문위원으로 봉사해

주고 계시는데,

혹시 한번 제안을 드려서 그분들이 시간을 내실 수 있겠다고 하면 우리 조사계획 검토와 관련해서 조사계획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조언도 얻어가면서 한번 범위를 정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지금 안재훈 위원님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같은 취지 맞으신가요, 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저희도 사실 검토를 하겠지만, 이게 들여다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여기 우리 안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그분들 말고도 포함되지 않는 분야의 의견들도 전문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검토의견을 받아 보면 저희도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의 장 (김호철)** 그 의견을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같이 공동회의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이신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서면이나 간접적으로라도 좀?

○**안재훈 위원** 저도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분들 중에서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거나 같이 포함해서 의견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 장 (김호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책과장님!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네.

○**의 장 (김호철)** 혹시 저희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전문 분야. 어떤, 어떤 분야가 있고, 저희들에게 조언이나 저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전

문위원님들이 그 분야별로 계시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지금 전문위원회 위원분들이 총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분야별로 각자 분야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쪽의 공학을 전공하신 분, 계측제어 쪽에 하시는 분, 그리고 방사선,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구조라든지 콘크리트 이런 부분들인데, 그쪽을 아마 전공하신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어느 만큼 깊이 있게 이분이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 장 (김호철)** 지질이나 지하수 거동 관련한 전문위원분들도 계시나요?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지질 쪽은 아무래도 지진이라든지 아마 이쪽 부분의 전문가분이 계시는 것 같고요.

○**의 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참고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어떠신가요?

○**이희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런 분들도 접촉해서,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조사단이라고 구성하신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사한 것인데, 그분들의 전문성을 잘 모르겠으니까 또 다른 전문위원을 대서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저희가 일단은 신뢰하고, 혹시 미진한 것이 있을까 봐 저희가 또, 전문위원도 아는 사람들 다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서 의견을 모아다가 전달하는 것이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홍 위원** 검토의견을 받아서 참고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은 토목이라고 하더라도 원전시설을 늘 다루는 토목 하는 전문가와 일반 또 강단에서 토목을 하시는 분은 전혀 다를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의 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공식 같은 토론회 자리나 이런 것보다는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자 알아보는 그 범주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한번 구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그것을, 그 의견을 한번 저희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한번 사무처,

혹은 또 이런 것을 전문위원들에게 한번 조언도 구하고 싶다고 하는 바람이 있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의견을 청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고요.

○**홍중표 위원** 그리고 '조사계획'에서 보면 현재 보면 지질학 쪽도 물론 다 계 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시급하게 경주 쪽에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수질이나 물 종류나, 물도 지표수나 지하수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검사가 빨리 되어서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질 쪽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되는 부분부터 먼저 조사결

과 발표를 빨리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 장 (김호철) 홍 위원님의 의견도 한번 조사단장님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섭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사단도 꾸려져 있지만, 조사단보다도 이 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사실 KINS의 T/F 21명인가, 31명짜리 T/F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주 전에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이것 관련돼가지고 규제 인허가 심사하는 양반들이 각 부서별로 다 통합이 돼가지고 스물하나? 서른하나?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양반들이 벌써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그 양반들의 결과는 아마 원안위가 쉽게 취득이 가능할 테니까 그 결과를 검토해 보는 게 사실은 좀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거든요. 만약 있다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할 수 있으면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KINS가 조사단 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 항목 중에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단에 권고를 하고 하는 이런 형식이 되면 좀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 장 (김호철) 한번 T/F 분들을 모시고 그간의 조사나 검사경위를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그 취지를 살려보는 것은 어떤가 싶기도 하네요.

○한병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의 장 (김호철) 정책과장님! 그리고 단장님! 신호상 단장님!

○신호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검사단장) 네.

○의 장 (김호철) 아까 발표도 하고 힘드신데, 가능할까요?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KINS가 그동안의 경위를 발표하고 이런, 협의회에 와서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 장 (김호철) 그러면 그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계획 검토’와 관련해서는 다 말씀들을 주시고,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한번 금방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추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이해가 충분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의운영’ 방식이 사실은 이게 참, 다들 멀리 떨어져 계시기도 하고요. 바쁘시기도 하고,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참 절실합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회의장소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원님들 각자 달라지실 수도 있고, 회의주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아무래도 회의운영 실무지원을 위한 간사를 저희가 적절한 분으로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박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속기사를 통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 부분은 국민들과 또 이해관계 당사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를 해봤는데요, 아까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회의장소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부터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잡을까요? 서울, 대전, 경주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듯 하기는 한데, 그와 더불어서 회의주

기. 회의주기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소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 위원님.

○박상덕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소는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 장 (김호철) 아, 서울,

○박상덕 위원 서울 한 번, 예를 들어서 대전 한 번, 경주 한 번 이렇게.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대전 계신 분 있나요? 대전?

○한병섭 위원 저 혼자뿐입니다.

○박상덕 위원 또 서울은 서울에 계신 분도 있으니까 저는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회의주기는 처음에는 조금 띄어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저쪽 조사단에서 뭔가 input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후로는 격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 격주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진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간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안의 간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시죠?

○의 장 (김호철) 네, 운영지원을 위한 간사여세요.

○박상덕 위원 그것은 원안위에서 해 주실 것 같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
고요.

그다음에 속기사를 통해서 회의록 작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녹취를 하는 것이죠?

○의 장 (김호철) 녹취합니다.

○박상덕 위원 저는 녹음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 의 장 (김호철) 정책과장님 우리 녹취하는 것 맞죠? 어떤가요?
- 박상덕 위원 그 대답을 명확히 안 하신 것 같아요.
- 의 장 (김호철) 아, 그런가요?
- 박상덕 위원 속기사가 하시는 것은 맞는데, “녹취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 속기사 (마주속기사무소 대표 김희현) 속기를 하려면 녹음을 해야 됩니다.
- 박상덕 위원 어차피요?
- 속기사 (마주속기사무소 대표 김희현) 네, 저희가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재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녹음을 저희가 들어가면서 빠진 부분을 채워줍니다.
- 박상덕 위원 내가 그것을 잘 몰라서.
- 속기사 (마주속기사무소 대표 김희현) 그러니까 속기는 녹취하고 동시에 같이 발생합니다.
- 박상덕 위원 그러면 속기로 회의록이 나온 다음에 녹취는 보존하는 것이죠? 저는 보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소통협의회가 끝날 때까지 모든 녹취는 다 어딘가에, 그것은 물론 원안위에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의 장 (김호철) 저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가 위원으로서 저희 회의공개 원칙은 일단 회의록을 충실하게 원문, 원(原) 발언에 충실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위해서 녹음을 하고, 그 녹취를 영구보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 박상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우리 소통협의회 끝날 때까지만.
- 의 장 (김호철) 아, 우리 소통협의회 끝날 때까지는 녹취를 남겨두자?

○박상덕 위원 그렇죠.

○의 장 (김호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속기사님 가능할까요, 그 방법은? 이 소통협의회 활동을 마칠 때까지는 그것을 보존해 주실 수는 있겠습니까?

○속기사 (마주속기사무소 대표 김희현) 네.

○박상덕 위원 그것은 어디? 하드디스크나 무슨 뭐, 뭐 있잖아요, 그것? 거기에 집어넣어 두면 되는 것이니까 부담 없이,

○의 장 (김호철) 네, 하여튼 가능하시다고 하니깐요, 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박상덕 위원 좋습니다.

○의 장 (김호철) 저로서도 나쁘지는 않은,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회의운영 실무지원 간사는 동의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아마 기제가 된 것 같고요. 우리 안전정책과장님께서 저희를 지원 총괄로 해 주실 것이고요.

간사는 어떻게? 정책과에서는 별도로 염두에 두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저희 원안위는 기본적으로 이 회의가 잘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역할이고요. 간사를 맡는다면 제가 아마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 장 (김호철) 우리 과장님께서요,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고생하실 텐데,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해 주세요.

(일동 박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하시죠.

○**안재훈 위원** 저도 회의주기는 격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빨리, 호흡을 빨리하면서 오래 끌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소도 저도 무리가 없다면,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참석하시는 분들 무리가 없다면 서울, 대전, 경주를 순회하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 장 (김호철)** 다른 보완하실 의견?

○**이상홍 위원** 두 분 제안에 동의합니다.

○**의 장 (김호철)** 한 위원님도 괜찮으시겠어요?

○**한병섭 위원** 네, 저도 괜찮은데, 자주 보는 것도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화상 회의 같은 것도 활성화해보는 것도.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끼워가지고 적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 장 (김호철)**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면회의를 격주 정도로 하되, 필요하면 화상회의도 한 번 시도해보자, 이 말씀이신 것이죠?

○**한병섭 위원** 네.

○**의 장 (김호철)** 그러면 대충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회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격주로 한다면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서울, 대전, 경주 적절하게.

아마 우리 현장 참관을 하기도 하고 하면 부득이하게도, 불가피하게라도 또 여기를 와야 되니까 아마 경주는 여러 차례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서울, 대전, 경주를 적절하게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주기와 관련해서 저희 소통협의회 활동의 목적이 조사단의 조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협력하고 하는 역할이 또 하나 있고요.

다만, 또 조사 그 자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또 그것을 좀 더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의 제도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원안위에 제시한다는 것이어서요,

회의를 격주로 하고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번씩은, 이게 만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다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한 번은 이 조사활동과 관련된 저희 검토논의를 하고, 한 번은 우리 제도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Two-track으로. 같은 기간 내 결과를 도출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의장으로서는 좀 갖는데 어떠실지요?

○**박상덕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이 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소통협의회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Two-track으로 갈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바탕이 안 된 그냥 제도개선, 일반적인 제도개선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원안위 전체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이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의 장 (김호철)** 맞습니다.

○박상덕 위원 우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같은 경우에 훈령에는 분명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다가 탈(脫)원전에 대한 로드맵 스케줄까지 넣어놨다고요. 법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통협의회 권한이 전반적인 제도개선은 아니라고 보고, 삼중수소 관련한 조사단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제도개선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의 장 (김호철)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쪽지로 ‘제도개선(안) 검토’. 우리가 제도개선(안)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그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어서 조금 쉬었다가, 머리를 프레쉬하게 하고,

○박상덕 위원 네,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의 장 (김호철) 또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내친 김에 “그러면 격주를 기본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중간에 화상회의도 있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스팟으로 저희가 하기로.

다음번 회의 일정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내친 김에 회의주기 나왔으니까. 격주 정도 된다고 그러면 다음, 4월 12일부터 16일 그 주간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죄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날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주간에 또 저희 회의가 끼인다면 저는 죽음일 것 같습니다. 저도 먹고 사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첫째 주, 셋째 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

는 것을 피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덕 위원 우리가 다음 회의까지는 크게 조사단의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나와도 소량 나올 것 같아서 4월 셋째 주 정도에 어느 날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둘째 주, 넷째 주는 빼고요.

○의 장 (김호철) 그게 위원님, 4월 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월 9일이, 둘째 주가 서로 이렇게 간주가 되면서요.

○박상덕 위원 아, 둘째 주.

○의 장 (김호철) 네, 4월 9일하고 23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선 "14일 정도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박상덕 위원 14일, 저는 좋습니다.

○한병섭 위원 좋습니다.

○의 장 (김호철) 괜찮으실런지요, 다른 분들?

○안재훈 위원 괜찮습니다.

○의 장 (김호철) 고맙습니다.

○이희석 위원 매주 수요일? 매번 수요일에 하실 것은 아니시죠?

○의 장 (김호철)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차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운영해 보고 이렇게 불박이로 몇째 주 수요일로 같지, 그것은 한번 해보시고 나가 보시죠.

4월 14일 날. 아까 나온 말씀 중에는 KINS의 그동안 조사활동, 조사·검사 활동에 대한 한번 브리핑을 받고 저희가 그것을 논의하자고 그랬는데, 그 순서로 한번 이번에 진행해 볼까요?

○박상덕 위원 네.

○한병섭 위원 시간하고 장소를.

○의 장 (김호철) 네, 시간하고 장소 정해야 되겠죠.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셨으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갈까요? 대전 한번 할
까요?

○한병섭 위원 대전은 저 하나뿐이니까, 경주가 제일 많으시고, 그다음에 서울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대전은…… 덕분에 저도 바람 좀 쐬게 빠져도 괜찮
습니다.

○의 장 (김호철) 아, 그러신가요?

○한병섭 위원 네.

○의 장 (김호철) 경주 세 분, 서울 세 분, 대전 한 분 이런 데, 서울 한 번 할
까요?

○한병섭 위원 네, 서울로 하시죠.

○의 장 (김호철) 어떠신가요?

○박상덕 위원 좋아요.

○이희석 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의 장 (김호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한번 하시죠.

○박상덕 위원 원안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 장 (김호철) 아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회의, 적절한 회의공간은 아마 마
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적절한 장소를 잡겠습니다.

○박상덕 위원 좋습니다.

○의 장 (김호철) 오후가 좋을지? 오전이 좋을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위원 아무래도 오후가 좋죠.

○홍중표 위원 저희들이 경주에서 올라가려면 오전에는 조금 안 힘들겠습니까?
시간은 오전이라도 조금 점심시간, 한 11시 정도가 돼야 어차피.

○의 장 (김호철) 오후 2시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홍중표 위원 그러면 제일 좋고요.

○의 장 (김호철) 2시, 정하겠습니다.

4월 14일 2시 정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위원 아까 KINS 분들만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수원 쪽은 필요 없나요, 설명을 들으려면? 아까 KINS도 설명했고, 한수원도 설명했잖아요. 이 설명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 하기를 우리 이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홍 위원 네.

○박상덕 위원 그러니까 KINS와 한수원이 와서 이 내용 그냥 가지고 질의응답을 더 많이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의 장 (김호철) 혹시라도 제가 KINS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KINS의 조사검사가 그때까지 완료나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완료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조사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조사·검사 내용과 관련해서 사업자 분께서 들으신다고 하면 또 부적절할 수도 있는 내용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우선은,

○박상덕 위원 아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와서 발표하라는 것이죠.

○의 장 (김호철) 네, 발표하는데 함께 자리를 하실 수가 있어서,

○박상덕 위원 아, 함께.

○의 장 (김호철) 그렇다면 혹시 또 문제가 있을 수,

○이상홍 위원 시간을 나눠서 하면 되죠.

○의 장 (김호철) 나눠서. 그러면 한수원도 한번 그날, 그러나 같이 하지는 않도록 하고, 서로서로 그게 더 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박상덕 위원 좋습니다.

○의 장 (김호철)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잘 모아주셔갖고요, '조사계획'과 '회의운영'과 관련해서는 큰 그림은 그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예정된 시간보다 아주 효과적으로 의견들을 모아주셔갖고 한 5분 남았는데, 우리 쉬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쉬시죠.

그렇게 하고 4시, 여기 계획에 따르면 4시 40분부터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정도 쉬시고요, 뵙겠습니다.

(오후 4시 18분 회의중지)

(오후 4시 40분 계속개의)

○의 장 (김호철) 한병섭 위원님이 잠시 나가셨는데 금방 돌아오실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말씀들 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조사단과의 협의가 되게 중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단과의 협의를 어떻게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가 구하도록 하겠고,

또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현장조사 참관 방안, 그리고 제도 개선(안)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사단과 협의방법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단장과 의장으로 요청을 받고 저희가 위촉을하기로 하고 한 번 봤었습니다. 함세영 단장님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단장들은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하자,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나눴고요.

다만, 또 조사단과 협의회 차원의 소통 방법이 중요한데,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여쭙서 한번 조율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단장님과 수시로 협의하는 것은 제가 하여튼 성실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가면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말씀해 주실 것은, 현안소통협의회와 조사단 차원에서의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해가는 것이 좋을지, 사무처에서는 우선 생각의 거리로 협의회 회의에 조사단장이 참석하거나 아니면 조사단 회의에 협의회 의장이 참석해서 양쪽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청취하고 전달하는 이런 방식은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시해 주시는데요, 이 방식이 나올지, 아니면 좀 더 개선되고 더 좋은 방식이 있을지 한번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가 다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어떤 협의도 필요하지 않겠

는가, 이것도 논의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하고 조사단장님하고 수시 협의하고, 그다음에 양쪽 회의에 단장님이나 또는 협의회 의장님이 참석하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또 전체회의도 하고 이렇게, 무리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의 장 (김호철)** 이 틀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논의를 해가면서 정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박상덕 위원** 네.

○**의 장 (김호철)** 이상홍 위원님.

○**이상홍 위원** 오늘 저희 회의할 때도 뒤에 많은 분들이 배석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은 회의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조사단 회의에 의장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하면 조사단 회의를 개방해 놓고 우리 위원들이 참관을 하고 싶으면 뒤쪽에 앉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참관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다만, 발언권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조사단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고 해서 저희들이 회의 때 와서 조사 진행과정들을 설명하고 하겠지만, 전문성이 없는 입장에서 바로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참관이 가능하면 뒤에서 참관하면서 사전에 그런 얘기들을 듣고 하면 이해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듭니다.

○**의 장 (김호철)**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

네요?

○**이상홍** 위원 네.

○**의 장 (김호철)**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저희도 그러면 조사단 위원님들께 개방해서 언제라도 저희 논의를 참관하시면서 상호 이해를 높여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단장님과 제가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만일 위원님들 그 방식이 좋으시다고 하면.

○**이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소통협의회 때 조사단장님이 매번 오시기도 힘들 것이고, 반대도 힘들실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교류할 수, 양쪽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라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자주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겠지만, 의견을 다 정리해서 전달하는 때라든지 그럴 적에는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의장님하고 단장님 간 수시로 협의는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의 장 (김호철)**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현안소통협의회 회의에 조사단장이 참석하고 조사단 회의에 협의회 의장이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이 생기네요. 하여튼……

안재훈,

○**안재훈** 위원 저는 여기서 ‘전체회의가 필요한 시점이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조사결과 다 나온 다음에 어떤 전체회의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중간보고회 정도가 있으면, 조사단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번이든 두 번 정도든 조사결과를 중간 정도에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저희도 남아 있는 계획에 대해서 의견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의 장 (김호철) 두 분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자리를 같이 하는, 하면서 논의도 같이 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또 조사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한번은 그 결과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살피는 자리는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가능하다면 하여튼 수시로라도 아까 이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자리도 마련하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고요

○이희석 위원 (고개 끄덕임)

○의 장 (김호철) 한병섭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리고 박상덕 위원님! 전문가 분들께서 더 감(感)이 있으시고 할 테니까.

○한병섭 위원 사실 저희들이 조사단 입장에서 보면 훈수 두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정을 우리한테 보고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양반들 일하는데 사기를 떨어트릴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④번 항목에 ‘현장조사 참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조사단이 중간 중간에 자체적으로 어떤 보고나, 저쪽에서도 어떤 액션을 하는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런 상세 일정이나 보고(報告) 이런 절차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공유해 주는 것으로 하는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현장조사 어느 팀이, 어느 조사위원이 간다, 그리고

어떤 조사를 요구했다더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 장 (김호철) 정책과장님! 조사단의 어떤 조사일정, 계획 이런 스케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도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혹은 스폿으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실 수는 있는 것이죠?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의 장 (김호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번은 조사 관련 논의, 한 번은 제도개선 관련 논의를 기본 축으로 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사 관련 논의를 할 때는 사무처든 KINS든 그간의 조사경위, 조사의 어떤 내용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정리해서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것일 거고요?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 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 사무처나 기본적으로 KINS로부터 보고를 받아가면서 저희 논의를 하되, 조사단과 공동의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고 형식은 되게 조심스럽고,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형태가 되었던 같이 공동의 논의 자리 이런, 조사단 분들을 오히려 모셔서 저희가 듣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상홍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해 주신 양쪽 회의를 그냥 오픈, 양쪽 조사단 분들께 혹은 우리 협의회 위원들께 참관의 기회는 허락해 주라, 오픈해서. 그러나 발언은 하지 않고 참관해서 경청하는 그런 기

회는 달라고 요청 드리는 것, 큰 이견 있으신지요? 없으면 제가 단장님과 한번 그 부분도 잘 전달해서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조사단과 협의방법과 관련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것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참관’. 아까 우리 홍중표 위원님께서 되게 중요한 지점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여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참관을 원하거나 또 필요할 시에는 참관을 하도록 진행한다는 게 사무처의 정리된 내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사계획 확정 이후 조사단의 조사경과에 대한 검토 계획을 우리가 또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당구장(※) 표시를 해서, 이 취지가 제가 눈에 확 잡자기 안 들어오는데,

정책과장님! 당구장(※) 표시의 취지는 보완해서 설명해봐 주실 수 있어요?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이것은 현장조사 참관과 관련해가지고 조사단의 조사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현장 점검까지 포함을 해서 조사단의 조사경과를 어떻게 할지, 이런 계획을 소통협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이었는데, 사무처의 입장이지 저희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은 아니고 그냥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한병섭 위원** 좀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게, 만약 조사단에서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실 것이거든

요. 자료 요청을 하시면 자료요청 목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은 힘들겠죠? 비밀스러운 자료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실까요?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조사단이 한수원이라든지 이렇게 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병섭 위원** 네. 요청 목록이나 제공 목록 같은 것들을 보면 혹시 우리가 봤을 때 '추가로 이런 자료도 있는데.'라고 어드바이스 정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그런데 목록 제공 정도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병섭 위원** 어쨌든 조사단도 아마 개인 베이스로 하시는 게 아닐 것이고, 원안위에 취합해서 원안위가 또 목록 같은 것을 작성해가지고 할 테니까 이런 자료 목록이 있었다. 그 정도는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네. 조사단에도 저희 원안위가 같이 간사 역할로, 지원 역할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병섭 위원** 그러니까 자료 목록이랑 그다음에 현장방문 계획이나 이런 목록 정도는 우리랑 세어해 주시면,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커닝이라도 하시게, 관심 있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거든요, 자료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의 장 (김호철)** 그렇죠. 저는 조사단으로서 크게 어렵지 않을까 싶고, 박상덕 위원님이나 한병섭 위원님, 이희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요청도 해 주시고 그러면 오히려 상호 이해도 더 증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병섭 위원** 제가 모르는 자료들도 추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하게 해 주시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섭 위원** 고맙습니다.

○**의 장 (김호철)** 아직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참관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계획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도 같고요.

혹시 홍 위원님!

○**홍중표 위원** 네.

○**의 장 (김호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또 “이 타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눕시다.” 이렇게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바람이나 의견을 한 번 주시면.

○**홍중표 위원**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물론 말씀드렸지만, 참관하자고, 저희들이 참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시료 채취나 사실상 시료 거기 배관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 우리 이상홍 국장님이나 저나, 물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관심 가지고 참관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치, 우리가 참관했을 때, 특히 시료 채취 같은 것은 샘플로 채취할 때는 저희들이 참관해서 확인을 해야 그 결과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원안위나 원자력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지역주민들한테나 여러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 있다 보

니까 이런 부분은 꼭 참관해서.

특히,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삼중수소 유출 관련 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관심도니까 그런 부분 시료 채취에는 꼭 참관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병섭 위원** 아마 그 부분은 제가 관련 일을 해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장기 아이템이고 지금 당장 조사단 할 수 있는 시간 내에 하는 것들이 아니고, 원안위의 어떤 조치가 있고 한수원이 거기에 따라서 부지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샘플링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도 지금보다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의 조사단에서,

○**홍중표 위원** 그게 그만큼 오래 걸립니까?

○**한병섭 위원** 보통 한수원이 뭔가를 하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이 지금, 계획이 없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홍중표 위원** 네.

○**한병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시료 채취나 이런 행위를 하는 데는 빨라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 조사단 시간에는 아마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중표 위원** 그러면 우리 조사단이 끝이 나고도,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단이 보통 이루어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요?

○**의 장 (김호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입장은 '하여튼 최대한 자율적으로 조사계획을 세워주시라, 그것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상하건대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정말 잘하기 위해서 계획을 마냥 느리게 세울 수는 없으니까 한 달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충분히 협의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것으로 그때 단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병섭 위원** 한 달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수원 입장에서 보면 '부지오염도 조사' 이런 내용일 텐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계획 세우고 실제 조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엄청 걸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중표 위원** 지금 경주시에서 주관해가지고 '민·관합동조사단'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면 발족한 지가 약 두 달 정도 됩니다.

다음 4월 달부터는 시료 채취부터 먼저, 수질 이런 쪽으로 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범위도 결정이 어느 정도 됐고, 그 당시에 조사하는 기간도 약 길게는 1년 잡았거든요. 길게는 1년, 빠르게는 한 2개월에서 시기적으로 검사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원안위도 사실 똑같은 부분에서 출발하면 빨리 진행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한병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원안위가 주도로 돼서 하고 아마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주도가 한수원하고 경주시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시료 채취나 이것은 한수원 영역이거든요? 한수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다고 위탁 용역을 지금 제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중표 위원** 네.

○**한병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성격이 그것이랑 완전히 달라서, 저
도 사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어야 한 달이
라고 그러네요. 한 달에서 두 달이라고 그러는데, 계획서도 못 세울 것이
거든요, 그 정도면요.

○**홍중표 위원** 그러면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이상홍 위원** 아니, 한 달은 조사계획서 수립에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인 것이고,
그 이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어쨌든 민간조사단이라고 하지만 원안
위에서 구성한 조사단이고, 규제기관이 직접 들어가는 조사단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사들은 신속하게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중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아직 뭐를 조사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마 계획서를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필요한 시료나 이런 것들은 확보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의 장 (김호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한 달 정도, 그리
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두(二) 주 정도를 기본 콘셉
트로 잡아 놓고, 그다음에 그게 확정되면 조사에 들어가고 조사계획부
터 그사이에 또 추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법률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하는 조사와 저희의
조사는 좀 성격은 달라 보인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법적인 규제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수원의 협력, 지방자치단체 민간환경감시기구와 협
력적인,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조사는 「원자력안전법」 제98조(보고·검사 등)에서 정하

는 검사 권한의 행사로서 검사를 하되 다만, 대국민 신뢰를 더 형성하기 위해서 민간조사단으로 하여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나 기타 보완적인 내용들은 저희 소통협의회가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나름 저희 주도적으로 또 한수원에 요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한수원은 거기에 성실히 적극적으로 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좀 빠를 수 있고.

○**이희석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결국 측정하려면 샘플 채취는 오히려 쉬운 것이고요. 측정하려면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성능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다 스케줄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 하라.'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꼭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스케줄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한수원은 자체 내(內) 특정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몇 개 대학이 발전소 주변에 또 측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게 스케줄이 잘 맞아떨어지면 빨리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잘 안 맞으면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조사단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라고 꼭 주장하시면 조사단에 '그 내용을 검토해 달라,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홍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 장 (김호철)** 안재훈 위원님 말씀?

○**안재훈 위원** 같은 취지입니다.

○**의 장 (김호철)** 같은 취지이신가요?

그래서 경주에 계시는 특히, 지역에서 더욱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면서 하여튼 참관하고, 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장이 조사단장님을 통해서라도 요청드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대략 의견들을 모아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도개선(안)'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상덕 위원님께서 '조사를 토대로 하는,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죠?

○**안재훈 위원** 저 먼저 의견 드려보면요, 일단 저도 '조사결과,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안)을 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조사결과 다 나온 시점에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고 토론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조사단에 들어와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어떤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사건의 원인 조사나 이것에 대한 어떤 오염 여부, 유출 여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 주로 보실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부터 보면 CFVS(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를 다는 과정과 거기에서 그게 문제가 생겨서 발견을 못하고 나서 이후에 또 그것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이게 한수원부터 KINS, 원안위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보고의 과정, 그리고 조치의 과정, 이런 전반에 걸쳐서 어떤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영역이 아닐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차원에서 상세한 말씀도 들어보고, 보고도 들어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외 사례라거나 관련한 어떤,

아까도 NRC 관련한 어떤 그런 사례나 규정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내용도 같이 살펴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해나가면서 조사단의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맞춰보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덕 위원**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기능 중의 하나가 조사계획을 검토해서 거기에 우리 의견을 넣는 거예요. 만약에 CFVS에 대해서 조사계획이 없으면 조사계획을 넣어서 거기 나온 결과를 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과 지금 안 위원이 하신 말이 상반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CFVS를 조사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우리 월권이고, 우리가 조사단에 CFVS 스케줄이 안 들어 있으면 '이것 해라, 그 원인을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병섭 위원** 조사단도 인력이나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말 씀드리는 게, 안전으로 하라고 했을 때 저쪽은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분들 이니까, 지질이나 토목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우리가 하기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하고, 어차피 안 건은 잡아 드리고 아마 그럴 개연성이 높거든요.

“우리 항목이 아닐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 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먼저 드리고 그쪽에서 판단하시게 하고, 한 번 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의 장 (김호철)** 하여튼 조사범위 설정에서부터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범주 에 대해서는 한번 요청을 드리고, 그것의 조사결과를 보아가면서 또 논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셨고.

○**한병섭 위원** 네.

○**의 장 (김호철)** 우리 안재훈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면 지금 월성 이 누출 관련한 문제가 비롯된 게 CFVS 시공의 잘못이다. 그 런데 그게 2012년도에 시공된 것이 2018년도에 이르러서야 밝혀지게 되고, 그 사이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시간은 흘러갔고, 그래서 지 역에서든 우리 시민사회에서든 참 우려도 있고, 의혹도 있고 이렇게 생기 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조사를 통해서 밝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 그때 당시에 ‘운영변경 허가’라고 하는 규제 절차를 통해서 이게 다 점점이 되고 했을 텐데, 그때 왜 점점이 되지 못했을까? 그러면 그때 규제 심사라든가 가동전심사라든가 이런 것

들은 제대로 되었을까? 왜 이런 문제가 다른 사고를 볼 때라도 반복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규제기관 차원에서 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서 그런지 그런 취지를 담고 계시는 것도 같아요.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박상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조사단에서 저희가, 저희가 다 조사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단에 요청을 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그것대로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조사가 되면 좋겠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봤을 때 사실 '조사단에서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봤을 때는 다 규제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사실은 원안위에서는 이게 보고대상이나 아니냐를 가지고서도 또 논란을 한 적이 있고,

시민사회나 바깥에서 봤을 때도 '아니, 왜 저런 논란을 하고 있지? 저게 보고사항인가 아닌가가 왜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혼란스럽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피는 것은 사실 조사단 차원의 조사에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차원에서도 살펴보면 좋겠

다, 조사단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박상덕 위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삼중수소가 CFVS로부터 나왔다.” 그것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CFVS가 지금도 손상되어 있지만 지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터빈 홀(Turbine hall)에서 발견된 것과 CFVS가 손상된 것 사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CFVS가 설치하면서 차수막 bottom이 손상됐는데, 왜 그런 설계를 인증해 주고 왜 그런 설계를 공사하게 했느냐. 그것은,

○**의 장 (김호철)** 저도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박상덕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삼중수소가 CFVS 때문에 나왔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 장 (김호철)** 그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CFVS 시공의 부적절성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비롯된 하나의 배경 중의 하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상덕 위원** 네, 그런데 지금도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도 안 셉니다. 밑에, 아까 그림 보셨죠? 밑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밑에 다 배수구가 있어서 배수구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그 배수구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손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손상이 안 됐으면 9년 전에도 손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의심이 된다? 일반인으로서 의심할 수 있다고 봐요, 주민이나.

그러나 우리가 국가 전문위원회인데, 국가 전문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바깥으로 나가면 저는 안 된다.

○**이상홍 위원** 박상덕 위원님한테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다투면 안 되는데, 이번에 조사단이 만들어지고 저희들 소통협의회가 이렇게 꾸려진 것은 국민적인 여러 의혹을 해소하자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FVS 설치 과정에서 차수막이 손상된 것은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 같고,

○**박상덕 위원** 네.

○**이상홍 위원** ‘그 손상으로 인해서 삼중수소가 누출이 됐는가, 안 됐는가?’의 여부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죠.

오늘 한수원이 발표하면서는 한수원은 ‘누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에 대해서 KINS의 입장이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일단 KINS는 ‘한수원의 보고를 존중한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발표를 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된 발표라고 한다면 사실 조사단이 구성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 분명히 그 지점도 조사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한수원과 KINS의 기존 발표들이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버리면 상당히 이 협의회 논의와 조

사단의 앞으로 진로에 있어가지고 난항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박상덕 위원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조사하지 말자, 이것은 완벽하게 여기서부터 삼중수소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조사는 하는데 ‘삼중수소가 거기서 나왔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자, OK. 그런데 우리 위원회 안에서 삼중수소가 나왔기 때문에 조사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의 장 (김호철) 두 분 말씀 동의합니다.

저희는 하여튼 어쨌거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그러나 또 단정은 하지 아니한 채, 왜냐면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단정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사 자체에 찬물을 끼얹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배제하고 단정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를 하여튼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과 지역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청을 하고,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뭔지는 또 조사단에 전달을 잘하고,

○박상덕 위원 좋습니다.

○의 장 (김호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

○박상덕 위원 좋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의 장 (김호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CFVS가 차수막을 뚫고 시공되었다는 것, 이게 문제였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비롯되었는지도 한

번 규제를 잘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안재훈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경청할 만하다.

○**박상덕 위원** 네. 안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의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장님이 그렇게 풀어갔거든요. CFVS 때문에 차수막이 손상되고 삼중수소가 나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해야 된다.

○**의 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제가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회의록 보고, 제가 뭐라고…… 저도 긴장돼요, 이 자리.

그래서 무슨 말 했는지는 추후에 또 한 번 이렇게 보면서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러죠.

○**박상덕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조사는 해야죠. 누군가는 만약에 저쪽 조사단이 이것을 조사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사하면 되는 것이죠. 조사는 해야 됩니다.

○**의 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이상홍 위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조사단에서 하고 앞으로 이렇게 조사단에서 진행될 조사가 방금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CFVS 때문에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쪽 조사를 해보면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분명하게.

그리고 저장조에 균열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도개선(안)’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막막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닐뿐더러 상당히 이것은 백

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3개월, 4개월 후에 어떤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뭔가 새로운 제도개선(안)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새로운 제도개선(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모임에 KINS나 한수원으로부터 우리가 깊이 있는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뭔가 새로운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그런 논의들을 충분히 해나가야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뭔가 보고서를 내놓을 때 좀 더 진보한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 장 (김호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miss 한 게 있는데요, 이 의사진행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개선(안) 검토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뭔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듯해가지고 오늘은 브레인스토밍하듯이 이것과 관련된 자유롭게 말씀을 꼭 나누시고요,

이것은 다음번에 각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시해 주시고, 그것들을 positive 하게 더 합친다거나 아니면 negative 하게 제거해 가는 방식으로 우리 제도개선(안)의 범위를 확정해가고,

그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각계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과 조력은 또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한번, 방안을 확정하는 것은 다음번 회의 때 하나의 안건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전혀 개의치 마시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브레인스토밍하듯이 말씀을 나누시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는 데 오히려 더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닐 것이고, 이미 KINS나 원안위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KINS를 불러서 발표할 적에 지금 제도개선 관점에서 다루어야 될 꼭지가 몇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강조하지 말고 리스트 정도로 우리한테 보여주면 저희가 검토할 적에 더 쉽게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제도라는 것도 상위법에서부터 하위규정, 지침까지 많은데 조금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가 수렴한 의견, 얻어온 것들과 비교해서 정리하면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 장 (김호철)** 저희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무처가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런 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사무처에서 잘 정리·과약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다음에 사무처가 구상하거나 지금 진행, 그것과 관련된 진행 중인 제도개선 관련한 사항을 한번 보고를 받고 그것을 토대로도, 그중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택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말씀하신 제도개선(안)이라는 게 결국은 삼중수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저희가 종합계획 차원

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제도개선(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석 위원** 아니, 그렇게 너무 확장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사안의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확장을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박상덕 위원** 당연히. 아니,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안위 전체, 또는 원자력법 전체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모이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나타난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안위 전체를 예를 들어 없애자, 예를 들면. 완전히 예(例)이지만,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이 삼중수소 논의와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제도로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되는 것은,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음번에 논의하자는 것은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지, 그 범위를 깨는 논의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병섭 위원** 아시겠지만, 오늘 들으셨겠지만 KINS나 이런 데서 아까 제도개선 했으면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원안위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국민 참여로 소통위원회 지금 제도 개선하는 것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항목이 아니고, 겨우 그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모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 장 (김호철) 편하게들 그냥 말씀하세요.

○안재훈 위원 저도 그냥 한 가지 의견 드려보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와서도 사실은 되게 헛갈리는 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게, 이게 보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는지가 잘 안 드러나거든요.

한수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인지, 원안위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인지, KINS에서 판단했다는 것인지, 이게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저는 이 사건의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각 사업자와 KINS, 그리고 원안위가 어떠한 보고들을 했고, 어떠한 조치들을 명령했고, 혹은 사업자가 한 조치는 무엇이었고, 어떠한 보고서를 냈고, 이런 부분들이 쪽,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이게 문제가 됐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관련해서 원안위에서는 어떤 법의 조항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한수원은 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어떤 조항에 의해서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안 했는지.

그런데 지금 보면 또 다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왜 보고 했는지도 사실은 저도, 이것을 임의로 보고한 상황인지 이게 보여야 ‘아, 이게……’

어쨌든 지금 정도까지 온 게 저는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 뭔가 안 돼 있는 것들을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상덕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사건의 스토리와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에 대한 summary는 원안위든 KINS든, 또는 한수원이든 내놔야죠. 그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판단…… 저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명하는 월권이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요구해도 된다고 봅니다.

○의 장 (김호철) 시간에 조금은 여유가 있으니까요, 편하게 한번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안재훈 위원 그냥 시간이 남아서. 저도 질문을 하나 KINS에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외국의 어떤 사례들을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을 때 대개 사업자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3자가 검증하는 사례들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사단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KINS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시료 채취나 이런 것들 직접 하셔서 조사를 했는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신호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검사단장) 제가 답변드려야 됩니까?

○박상덕 위원 네.

○신호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검사단장) 저희들이 삼중수소 관련해서 월성 1·2발 각각 삼중수소 시료를 채취해서 KINS 자체적으로 독립 검토도 했습니다, 평가도 했고, 일반적으로 부지 외(外)는 KINS가 독립평가를 늘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목적은 한수원이 분석하는 능력과 KINS가 분석하는 능력이 서로 교차해서 분석할 정도로 충분한가.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

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의 장 (김호철) 부지 외(外)라면 부지경계 밖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호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검사단장) 네.

○의 장 (김호철) 그것은 KINS도 같이,

○신호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검사단장) 부지 내(內)도 했습니다.

○의 장 (김호철) 부지 내부에서는 하지 않고?

○신호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검사단장) 부지 내(內)도 했습니다.

○의 장 (김호철) 아, 부지 내(內)도 하시고?

○신호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검사단장) 네.

○이상홍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해서 원안위에 관계 자료들을 요구하면 저희들은 KINS의 보고서나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원안위는 항상 한수원 자료를 다시 저희들한테 토스해 주는 형태로 해서 자료보고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원안위에서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의 장 (김호철) 하여튼 다음번 KINS가 이 조사나 검사의 경위를 설명하실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또 거기에서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보완을 한번 해보시죠.

더 말씀이 없으시면 그래도 우리 제도개선(안)을 어떻게 범위를 설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서로 의견들을 제시하시면서 각자의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게 다음번 저희 회의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조사범위를 어떻게 확정했으면 좋겠다. 아, 제도개선(안)과 관련된 주제를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다, 그 제도개선(안)을 저희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데 있어서 전문가나 각계의 어떤 의견을 저희가 듣고 모으고 하여튼 정리해가는 방식은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서 견해들을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그때는 확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50분 정도 저희가 논의를 모았네요.

혹시 이런 다섯 꼭지의 이야기를 진짜 되게 잘 의견들을 모아주시고, 또 피력해 주셨는데요. 더 우리 앞으로 활동을 위해서 논의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상홍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2013년부터 실질적으로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他) 원전은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경수로 원전도 월성 원전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지하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런 조사를 하고 있으면 경수로 원전의 삼중수소 농도 자료를 다음 회의 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수원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보고가 있었는데, 타(他) 원전과의 비교 데이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 부탁을,

○**의 장 (김호철)**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상홍 위원** 아, 그 안에?

○**이희석 위원** 네, 여기(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조사 관련 자료집)에 들어
있어요, 그 내용이. 네, 저기 있을 거예요.

○**이상홍 위원** 있습니까?

○**의 장 (김호철)**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을 한번 보시고, 추가적으로 좀 더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저나 아니면 우리 정책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이상홍 위원** 그리고 오늘도 발표를 하시면서 ‘중수로 원전이기 때문에 타 원
전에 비해서 대기 중 배출농도가 되게 높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
으로 데이터를 비교해서 대기 중 배출되는,

○**이희석 위원** 저기 있습니다, 자료에.

○**이상홍 위원** 있습니까?

○**이희석 위원** 네.

○**이상홍 위원** 제가 자세히 안 봤네요. 제가 한번 보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덕 위원** 그러니까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빗물까지도 있잖아요. 다
있죠. 그러니까 뭐……

○**의 장 (김호철)** 더 말씀이 없으시면요, 이상홍 위원님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
실 것?

한 10~20분은 논의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일정안내 이렇게는 돼 있는데,
저희가 향후 일정까지 정했네요. 4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서울에서 하기로 하고, 장소는 사무처에서 정해서, 오시기 편한 장소에
서 아마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은 KINS하고 한수원이 별도로 이 삼중수소 현안에 대한 보고를 좀 더 상세한 추가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도를 더 높이고.

그다음에 삼중수소 문제와 연관되어진 안전 현안에 관해서, 그 현안의 범위에서 원안위는 그동안 혹시 구상하고 있는 안전종합계획, 안전강화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받고,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논의를 하고, 또 저희 논의는 그것을 논의하고,

다만, 제도개선(안)의 제도개선 분야를, 범위를, 주제를 확정하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전문가 각계 의견 수렴방안도 같이 논의를 한다. 이 정도 다음번 회의에서는 다루어질 것 같네요.

○**박상덕 위원**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들 중에 삼중수소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삼중수소가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 어떤 해를 입히고, 그래서 우리 이희석 박사님이 하셔도 좋고, 교수님이 하셔도 좋고, 또는 외부에서 삼중수소 자체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고, 인간에 대한 위해도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느 분이 다음 14일 날 회의 때 해 주시면, 한 30분이면 시간이 남을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면 좀 그러니까, 어느 분이 외부에서 하셔도 좋고, 우리 내부에서 하셔도 좋고.

그래서 삼중수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어떤 레벨 이상이 되면 위해를 주는지, 이것을 먼저 알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삼중수소 7만 Bq이면 “와~ 7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무리하시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의 장 (김호철)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상덕 위원 그것을 넣어서,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의 장 (김호철) 기본적으로…… 네, 말씀하세요.

○이상홍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자료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월성원전 부지 내 27곳 지하수 관측공에서 이렇게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교 데이터들이 '부지 내 지하수 데이터'가 없습니다.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부지 내 지하수 관측공이 없어서 지금 데이터가 없는 것입니까? 비교 데이터가?

○박상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삼중수소가 나올 위해도가, 월성보다는 적거든요.

○이상홍 위원 아, 삼중수소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사능 누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지 내 주요기기 주변에 관측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교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관측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의 장 (김호철) 제가 설명 받기로는, 지하수 관측정은 삼중수소만이 아니라 방사성핵종 누출을 늘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 그 관측정 설치에 대한 이력도 저희가 설명을 쪽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타(他) 경수로 원전은 물론, 삼중수소는 현저히 적을 것 같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지하수 관측정은 설치되어서 감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저도 아직은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병섭 위원**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수로도 있기는 있습니다. 월성처럼 촘촘하지는 않은데.

○**이상홍 위원** 촘촘하지 않더라도 있으면 그 지하수 관측공에서 지금 검출되는 삼중수소 양이나 다른 어떤 방사성핵종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희석 위원** 조사단에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지하수라는 게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부에서 나오는데 외부에서 안 나온단든지 이런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지하수 경로를 보면. 부지가 아주 광활한 대지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아마 조사단에서 그 얘기는 나온 것 같지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 장 (김호철)** 단순한 비교를 위한 요청이니깐요, KINS에서 경수로 타(他) 원전에서의 지하수 관측정 설치 현황이라든가, 혹시라도 보고되어지거나 관리되어지거나 하는 수치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제시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상덕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용어를 명확히 해야 될 것어요. 관측정 중에 사이트 내(內) 있는 것들이 지하수를 측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 의 장 (김호철)** 월성은 '지하수 관측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 박상덕 위원** 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발견된 것은 지하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터빈 홀(Turbine hall) 배관 집수정입니다, 집수정.
- 의 장 (김호철)** 네, 집수(集水) sump에서.
- 박상덕 위원** 그러니까 집수정하고 지하수하고 혼동해가지고 막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 이상홍 위원** 아니, 위원님! 그 제가,
- 한병섭 위원** 집수정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 이상홍 위원** 위원님! 저는, 저는 지금 현재 '지하수 관측공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일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어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덕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된 터빈건물 내(內) 삼중수소는 집수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아니다.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이것 사실이에요.
-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게 지하수 아니에요?
- 이상홍 위원** 네.
- 박상덕 위원** 지하수는 별도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하수 데이터를 보고 싶으시다는 것 아니에요?
- 이상홍 위원** 네, 지하수 데이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경수로 원전 부지 내(內) 있는 관측 우물에서의 삼중수소 농도나 이런 데이터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덕 위원 그것은 KINS나 원안위가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 장 (김호철) 그렇게 하여튼 준비해 주시고요?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네.

○의 장 (김호철) 그리고 대략 저희 회의를 2시간을 기본, 2시간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사정이 되면 좀 더 연장이 되더라도요.

혹시 다음번 회의 때 소화해낼 수 있을지,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중수소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우리 자체 스터디, 혹은 이런 것들을 다음번 KINS 보고 듣고, 한수원 보고 듣고, 질의응답하고, 또 원안위 보고 듣고, 저희들 제도개선 범위 확정하고 해서 다음번 회의에 소화 가능할 것 같으면,

다음번 회의 때 적절하게 전문가 초빙하고, 또 우리 두 분 계시고,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공부라 되긴 할 것 같은데, 소화가 어려우면 그 다음번 회의의 주제로 삼아도 될 것 같고.

○박상덕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우리 이상홍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의도를 보니까 월성의 지하수 데이터 거기 있잖아요. 월성 지하수 데이터 있죠?

○이상홍 위원 네.

○박상덕 위원 그것을 보고 '오염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수소에 대한 이해가 저는 충분치 않다. 그 데이터를 보고 '아, 이것

오염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으로 제가 해석이 돼요.

본인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보고서 “아, 이것 오염됐으니까 다른 경수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삼중수소에 대한 이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 장 (김호철)** 그래서 다음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요?

○**박상덕 위원** 네, 그게 더 중요해요.

○**한병섭 위원**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 위원님께서서는 그렇게 삼중수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삼중수소가 이미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설계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지, 당연히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내라는 것은 이미 다 전제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박상덕 위원** 그렇죠.

○**한병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중수소 하는 것이야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배정하는 게 사실은……

○**박상덕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 위원님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은 오염됐다라고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질문의 의도 속에 오염된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상홍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문제를 접하면

서 방금 박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전제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식들이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오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방향이나 인식이 과연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제 스스로 확인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 과정들이 있어야지 지금 조사단과 협의가 원활할 것 같고, 어떤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그것을 신뢰하고 시민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他) 원전에 삼중수소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단순히 ‘경수로로는 작게 나왔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싶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어떤 경향성들을 확인하고 싶은 것들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수로에 관측 우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협의회를 하면서 그 데이터가 없는지 저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왜 부지 외에 있는 삼중수소만 비교하는 데이터를 내놨지? 여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신뢰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혹시나 저희들이 놓치고 요구하지 않는 자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그런 자료를 내놓는 그런 조사단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박상덕 위원** 아니, 제가 경수로에서 측정된 지하수의 삼중수소를 받지 말자,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기준치 이내인데 그것 별도로 설명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환경단체에서 오신 분들, 또는 주민들은 삼중수소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설명을 한 위원은 필요 없죠, 저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려면 베이스가 똑 같아야 돼요. 한 사람은 삼중수소에 대해서 전혀 뭐가 뭔지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요구한다는 것이죠. 데이터 가져와라. 그래, 그것은 가져오면 되죠. 또 삼중수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잠깐 시간을 갖자.

○**의 장 (김호철)** 저도 좋은, 좋은 말씀이고 공감하고요.

다음번 회의 때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여쭙본 거예요.

○**이희석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 삼중수소 자체에 대한 얘기는 조사단에 계신 분들도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단장님하고 얘기하셔서 다음번 같이 모일 적에 한번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의 장 (김호철)** 그렇게 한번 제안은, 제안은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이희석 위원 네.

○의 장 (김호철) 그런데 그분들 스케줄상 이게……

○이희석 위원 어차피 저희가 한번 그쪽에 계획표 만들면 모일 것 아닙니까?

○안재훈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드려보면요, 지금 삼중수소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나 방사성물질에 대한 이해,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 영향?

○박상덕 위원 건강 영향이죠, 주민 영향.

○안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전히 사실은 과학적으로 얼마큼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상태이고요,

○박상덕 위원 라고 환경단체는 얘기하죠.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 얘기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 목적은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삼중수소가 얼마큼 나와도 무조건 괜찮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삼중수소냐, 또 바깥으로 외부 유출이 안 되도록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기본적으로 아, 그러면 이것에 대한 건강 영향도 이해를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참고 수준에서 저는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논의 의제로 갖고 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상덕 위원 그러세요.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자료를 설명하는 수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야 본인이 알아서 하

는 것이죠.

○의 장 (김호철)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자체 스터디라는 용어를 썼는데, 스터디한다는 차원에서 또 한 번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저도 그렇기는 합니다.

삼중수소에 대한 의학적, 공학적, 물리학적 평가들이 다른, 다르게 또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유기적 결합이 주는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정설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종합적으로 지금 삼중수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듣고는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리,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것이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종합적인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고는 싶다는 욕구가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그러면 한번, 다음번에 해보나요? 저희가 안전 논의라기보다는 저희 자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다음번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는 여쭙보는 것입니다.

○박상덕 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 장 (김호철) 다음번에 하자.

○박상덕 위원 그래야 그다음 논의가, 이 자체는 논의 아닙니다, 삼중수소 자체는.

그런데 그다음 논의를 서로 원활하게 하려면 ‘삼중수소를 이해한 사람끼리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 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삼중수소에 대한 스터디를 우리

가 해보자.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그러면 할지,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듣고 할지, 단수로 할지 복수로 할지, 그런 것들은 한번 제가 사무처나 KINS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께 메일로라도 의견을 여쭙고 방식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죠.

다음번에 하여튼 가급적이면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이상홍 위원님.

○**이상홍 위원** 다음 회의가 서울이어서 다들 멀리서 오시고 해서 사전에 시간을 미리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기본 회의를 한 두 시간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다음 회의 때 발제자들도 많을 것 같고 기본 넉넉하게 한 세 시간 정도 회의시간을 잡고 그렇게 서로 생각하고 모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III. 폐회선언

○의 장 (김호철) 웬지 두 시간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시간 이상 할애하실 각오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대충 다음번 일정도 잡힌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논의는 여기서 정리해도 될지요?

(「네」 하는 위원 다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 5시 52분 폐회)